

# 광주FC '우승 주역' 헤이스 3년만에 귀환

### 2022시즌 K리그2 우승 이끌어...이건희는 제주행 아시아챔피언스리그·파이널A 목표 달성 공격 전면에

광주FC의 '헤이스'가 귀환했다. 광주가 2022시즌 K리그2 우승 주역인 헤이스(사진)를 제주SK FC에서 영입했다. 3년 만의 광주 복귀다.

헤이스는 2021년 광주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에 입성한 뒤 2022시즌 12골 4도움을 장식하며 광주 공격을 이끌었다. 헤이스는 이해 K리그2 키 패스 1위(51회), 공격 진영 패스 1위(440회), 드리블 성공 2위(28회)에 빛나는 활약을 하면서 '크랙'의 면모를 과시했다.

헤이스는 또 경합 성공 4위(72회)도 장식하는 등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며 '정효불'의 핵심 멤버로 역할을 했다.

헤이스의 활약을 앞세운 광주는 2022시즌 25승 11무 4패(승점 86)를 기록, K리그2 최다 승점 기록을 갈아치우고 '우승팀'으로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했다.

헤이스는 2023시즌 제주SK로 이적했으며, 지난 2년 64경기에 출전해 12골 7도움을 기록했다.

3년 만에 광주로 돌아온 헤이스는 광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ACLE)와 파이널A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광주 공격 전면에 서게 된다.

헤이스는 175cm·75kg으로 큰 체격은 아니지만 안정된 밸런스를 바탕으로 공을 잘 보유하고, 뛰어난 탈압박 능력과 드리블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또 매서운 킥으로 다양한 공격 옵션을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서는 등 전술적인 활용도가 높은 선수로 평가받는다.

헤이스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행복하고 광주 팬들을 다시 만날 생각이 굉장히 설렌다"며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겠다"고 복귀 소감을 이야기했다.

한편 헤이스를 불러들인 광주는 이견희를 제주로

보냈다.

2020년 서울이랜드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견희는 2022년 임대 선수로 광주와 인연을 맺은 뒤 이해 15경기에 나와 6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견희는 헤이스와 함께 팀 우승에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시즌 광주로 완전 이적했다. 이후 2023·2024시즌에는 K리그1 무대를 누비면서 10골을 수확했다.

이견희는 186cm·78kg의 탄탄한 체격이 돋보이는 최전방 공격수로 연계 플레이, 헤더, 스피드가 좋다.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이견희는 전방위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강조하는 김학박 감독의 전술에 맞춤형 선수다.

최근 국군체육부대에 합격해 이견희는 4월까지 제주에서 활약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광주를 떠나 제주에서 새 도전에 나선 이견희는 "프로는 증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실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임명을 앞두고 있다. 발전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팀에 있는 때 순간 최선을 다해 미래의 새로운 기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유승민은 어떻게 '체육 대통령'이 됐나

대이변 연출한 변수들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치분  
대의원들 선거방식 문제 환기  
젊은층 공약 선거 운동 주효  
'216표' 강태선 선전도 한몫



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유승민이 14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꽃목걸이를 걸고 두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기흥 후보를 꺾고 대이변을 연출한 것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유승민 당선인은 14일 열린 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209표 중 417표(득표율 34.5%)를 얻어 3선에 도전했던 이기흥 후보(379표·득표율 31.3%)를 제치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 이기흥 후보가 여유롭게 3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기흥 후보는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해서도 체육계를 위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 체육인의 지지를 받았다.

체육계에서는 이기흥 후보의 고정 지지세가 30~40%가량 된다고 봤다.

그러나 유승민 당선인은 단일화 논의에 잠시 참여했다가 독자 노선을 택했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체육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치분 신청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대한아이스하키향회 이호진 회장을 포함한 선거인단 11명은 지난 7일, 강신욱 후보는 8일 각각 선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선거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를 하루 앞둔 13일 현행 선거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를 통해 선거방

식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대의원들에게 환기되는 효과를 냈다.

처음 투표에 참여한 한 대의원은 "처음에는 단순히 당일 투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치분 신청을 계기로 제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대의원 유권자 사이에서 확산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고, 젊은 유권자의 표심은 유승민 후보에게로 쏠렸다.

이기흥 후보 측의 선거 운동 방식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기흥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17개 시도단체를 돌며 회장들을 일일이 만났다. 이들이 체육계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은 크지만, 실제 선거에서 표는 각 1표에 불과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시도단체 실무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표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

/연합뉴스

유승민 후보는 하루 25km를 걸으며 2016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거 때처럼 적극적인 유세 활동을 펼쳤다.

또한 대한체육회 가맹 68개 전 종목에 체험하고 짧은 영상(쇼츠)을 제작해 온라인에 공유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끌어냈다.

강태선 후보의 선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체육회장 선거에서 216표(득표율 17.9%)를 얻어 3위를 기록한 강태선 후보는 서울시체육회 회장으로, 그의 지지표 상당수가 이기흥 후보의 표를 빼앗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강태선 후보의 표가 결과적으로 유승민 당선인의 당선에 도왔고,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이번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EPL 출신 링가드, FC서울 '주장 완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출신의 제1 링가드가 새 시즌 FC서울의 '캡틴'으로 선수단을 이끈다.

서울은 15일 '김기동 감독이 2025시즌 새 주장으로 링가드, 부주장으로 김진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지난해 임시 주장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선보인 링가드와 풍부한 주장 경험을 보유한 김진수의 헌신성이 김기동 감독의 선택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에 입단한 링가드는 팀의 부활과 K리그 최초로 50만 관중을 돌파하는 흥행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외국인 선수임에도 임시 주장을 맡아 특유의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코치진과 선수단의

가고 구실을 충실히 해냈다.

링가드는 "K리그를 대표하는 구단의 주장을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면서 "올 시즌 목표를 높게 잡아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 시즌 서울 팬들의 엄청난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시즌에도 경기장을 찾아 응원해주실 수많은 팬분을 기대하고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새 시즌을 앞두고 전북 현대를 떠나 서울로 이적하자마자 부주장을 맡게 된 김진수는 "2025시즌을 앞두고 서울의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있다. 영광스럽게도 입단하자마자 부주장의 역할을 맡게 됐는데 팀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드러냈다.



링가드(왼쪽)와 부주장 김진수.

한편, 그동안 서울의 주장으로 활약해온 기성용은 신입 주장단을 도와 팀의 정신적 리더로서 책임과 역할을 이어 나간다. /연합뉴스

## 셀틱 양현준, 공식전 18경기 만에 시즌 첫 골

### 던디FC전 선발 출전 헤딩 득점... 팀은 3-3 무승부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는 측면 공격수 양현준(22·사진)이 공식전 18경기 만에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양현준은 15일 스코틀랜드 던디의 덴스 파크에서 열린 던디FC와의 2024-2025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17라운드 순연 경기에 선발 출전해 폴 타임을 뛰면서 1-1로 맞선 후반 8분 헤딩으로 셀틱의 두 번째 골을 책임졌다.

일본 출신 공격수 후루하시 교고가 오른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크로스를 연결한 공이 경합 상황에서 튀어 오르자 양현준이 점프해 머리로 받아 넣었다.

양현준이 올 시즌 공식전 18경기 출전(7경기 선발) 만에 기록한 첫 골이었다.

양현준은 이날 경기 전까지 이번 시즌 정규리그 12경기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경기, 리그컵 2경기에 출전했으나 득점포는 가동하지 못했다.

아울러 양현준이 셀틱에서 골 맛을 본 것은 K리그1 강원FC에서 이적한 후 첫해인 2023년 11월 13일 에버턴과 2023-2024시즌 정규리그 13라운드 경기(6-0 승)에서의 헤딩 선제 결승골 이후 처음이다.

양현준은 이날 경기 71분을 뛰고 2-2로 균형을 이룬 후반 27분 알렉스 바에와 교체됐다.

셀틱은 양현준의 골로 앞서지만, 던디에 역전을 허용했다가 결국 3-3으로 힘겹게 비겼다.

전반 5분 만에 루크 매코완의 선제골로 앞서나간 셀틱은 전반 41분 울루와슨 아드우미에게 동점 골을 내줘 전반을 1-1로 마쳤다.

후반 들어 8분 만에 양현준의 골로 다시 앞서거나 곧바로 1분 뒤 수비수 캐머런 카터비커스의 자책골로 승부는 또 원점으로 돌아갔다.

셀틱은 양현준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나서인 후반 33분에는 에런 도넬리에게 역전 골까지 허용하고 끌려갔다.



결국 추가시간이 흐르던 후반 48분 아르네 앙겔스의 페널티킥 골 덕에 패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날 무승부에도 셀틱은 승점 60(19승 3무 1패)으로 리그 12개 팀 중 선두를 질주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레인저스(13승 5무 4패·승점 44)에는 여전히 크게 앞서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